

아침세평

관찰이 밥 먹여준다

김요수

광주연립기술자주 대표



'저런 눈치 없는 놈, 아무 데서나 끼어드네', 흥 불 때 으레 하는 소리다. 이때 '아무 데서나'에 방점을 찍으면, 끼어들어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말이고, '끼어드네'에 방점을 찍으면 낯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눈치코치도 없이 막무가내(莫無可奈)네', 제 역할과 처지를 모른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깁기빠빠(깁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를 못하고 제멋대로 뻔뻔하게 간섭한다는 말이다. 눈치코치 없는 사람 곁에서 견디려면 참을성 짙은 몸에 붙이고 살든지,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쇠'쯤이 필수요건이다.

눈치 챙기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거나 입방아에 오른다. 주변은 다 아는데 눈치 없으면 혼자만 모르는 꼴수대기가 된다. 눈치만 잘 챙겨도 욕먹지 않고, 코치만 있어도 칭찬 받는다. 눈치코치 아는 일이 어렵지만 겸손을 갖추면 눈치코치는 뜻밖에 쉽다.

하얀 눈발에 노란 복수초 보이면 막바지 추위만 남은 것이고, 나비 보이면 봄이 온 것이다. 부는 바람에서 물기

를 느끼면 비가 온다는 신호고, 먹구름 다가오면 비바람 몰아칠 것이다. 잡자리 날면 가을걷이 준비해야 하고, 매풌 소리 우렁차면 마지막 더위다. 자연에서 얻는 김새다. 집안 분위기가 잘 파악하면 용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른들 기분 살리면 평화를 길게 끌어갈 수도 있다. 하인리히는 그런 김새를 분석했다. 300사람이 다칠 뻔한 일이 생긴 뒤에는, 29사람이 다치고, 마침내 1사람이 죽는다는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다. 좋은 일도 300번쯤 해보면? 29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마침내 1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남의 김새를 훑어보는 일이다. 남의 김새 따라만 가다가는 험되고, 내 삶을 잃을 수도 있다. 남들만큼도 못 살게 되기 쉽다.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했지? 내 눈치 보는 일이다. 내 눈치 보다가 과거 보다 뒤쳐질 수 있다. 더 좋아져야 할 내 삶인데, 김새만 챙기면 제 역할을 감당 못한다. 그렇다고 김새를 모르면 사리분별 못하는 인승무례기가 된다. 눈치만 보면 약삭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아야 창조적 길로 나설 수 있다.

제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바뀌는 김새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제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았다. 어렵지만 김새와 눈치를 챙기면서 제 노릇을 해야 한다.

눈치코치가 됐든 김새가 됐든 살피는 일이고, 살피는

일이 관찰이다. 관찰은 관심을 넣고, 관심은 공감을 넣고, 공감은 소통을 낳는다. 소통은 대화의 불씨를 틔운다.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하고, 관찰의 기록이 쌓이면 통계다. 통계를 분석하면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나 관찰은 선물이다.

보이는 것이 다다. 관찰을 하면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관찰한 통계를 보면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관찰과 분석을 잘하면 패턴을 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 좋다'고 할 때 그 측은 수많은 경험과 통계와 분석에서 나온다. 하지만 선부른 측은 다만 짐작일 뿐이다.

보는 것이 관찰이고, 관찰의 통계를 분석하면 생각이 나온다. 분석과 생각은 다르게 보는 힘을 갖게 한다. 관찰과 분석과 생각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관찰을 연습해야 할 까닭이다.

겨울이 지나니 따뜻한 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추위가 온다. 누구나 아는 김새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내 삶이 싹피고, 좋은 이웃이 있고, 동료와 서로 도우면 내 하루가 뿌듯하다. 누구나 아는 눈치를 챙겨야 행복이 오래 간다.

눈치, 김새, 관찰이 밥 먹여준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채우는 물음들이다.

기고

개문발차한 전남·광주 통합, 이제는 설계의 시간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는 새로운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두 지역은 오랜 시간 경제·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제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통합 논의는 아직 완성된 설계도라기보다 큰 방향만 제시된 단계에 가깝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통합 이후의 행정 구조와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이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에 가까운 상황이다.

통합의 성패는 통합을 선언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떤 구조와 원칙으로 새로운 행정체계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 구조와 재정 체계, 산업 전략, 생활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지역 재구성의 과정이다. 설계가 정교하면 통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지만, 설계가 미흡하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제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권력 구조와 대표성의 설계다. 통합 이후 행정 권한과 정치적 대표성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곧바로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의 권력 구조는 지역 간 균형과 상호 견제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권역별 부시장제 도입이나 시의회 의석 구조의 합리적 배분 등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이 어느 한 지역의 확장으로 인식되는 순간 통합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 통합과 균형발전 정치다. 재정 격차는 통합 후 가장 현실적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시 내부에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의 목적은 행정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행정 중심지 문제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통합의 취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내부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행정 기능이 기존 중심도시에만 집중된다면 통합은 또 다른 내부 불균형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 중심지는 기존 중심도시에만 머무르기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에 주정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기관과 행정 기능의 분산 배치다. 행정 분점만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는 통합의 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어렵다. 해양·수산, 농경, 관광, 에너지 등 기능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권역별로 분산 배치한다면 통합은 행정 효율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 전략의 재설계다. 광주의 기술 기반과 전남의 산업·공간 기반이 결합될 때 비로소 통합의 경제적 의미가 현실화된다.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해상풍력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은 단순히 행정 경계를 넓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생활권 통합이다. 특별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은 행정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통합 교통요금 체계, 의료와 교육 협력 시스템 등 생활 기반 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은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일곱째, 통합T/F의 운영 방식이다. 행정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통합은 특정 기관의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권력 구조와 산업 전략, 생활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원칙이다.

통합은 흡수가 아니라 균형 있는 재설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지역의 확장이 아니라 두 지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때 통합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전남과 광주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서 있다. 지금의 설계가 향후 수십 년 지역의 구조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금 통합을 선언할 시간이 아니라, 통합을 제대로 설계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취재수첩

3대 가축전염병 '확산'...밥상 물가 혼돈다

송대웅

산업부 차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방역체계는 물론, 서민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동시다발'이라는 점이다. AI와 ASF, 구제역이 동시에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 겹치면서 방역 부담은 크게 늘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특히 계란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혼돈하는 가장 직관적인 신호다.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980만 마리를 넘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닭고기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저렴한 단백질'이라는 인식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SF 확산으로 돼지 이동이 제한되면서 도축 물량이 줄었는데, 실제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삼겹살과 목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며 결국 외식 물가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한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공급이 줄면서 주요 부위 가격이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닭·돼지·소 전반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전방위 물가 자극'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속도 조절'에 가까운 처방이다. 미국산 계란 수입과 할인 판매는 단기적인 완충 장치일 뿐, 근본적인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다른 변수는 외부에 있다. 중동 리스크 등 국제 경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서 축산물 가격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염병이라는 내부 변수와 국제 환경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축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반복되는 전염병, 공급 기반 약화, 외부 변수의 의존도 확대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역·수급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밥상 물가는 가장 민감한 지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숫자보다 훨씬 빠르고,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대응을 넘어, '다음 위기'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다.

사설

광주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성공 추진되길

광주시가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하는 1인가구 특성화 사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1인가구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광주의 현실에서 비롯됐다.

실제 2020년 32.4%였던 1인가구 비중은 2024년 36.9%로, 4년만에 4.5%p 늘어날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38%, 청년층 36%, 노년층 25.8% 등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처럼 1인가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생활 방식 변화에 따른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 안전·주거에 취약하다는 데 있다.

광주시가 자치구와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모에서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6개 사업을 선정할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동구는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속 교류확대를 위해 집밥·건강식을 배우는 '잇:온(ON) 키친', 문화체험을 즐기는 '잇:온 컬처' 프로그램 등 '잇:온'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 속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

남구는 청·장년층의 탁구와 요리, 반려동물 간식만들기 등을 지원하는 '1인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사업을 하기로 했다.

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파크골프, 목공예 등 취미활동과 요리 등 정서를 지원하는 '중장년 1인가구 실업업!' 사업을 한다.

광산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마을·관계·생활·회복 패키지'와 '아재들의 취향잇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강 태권도 교실과 공유식당,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는 한편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취미 활동과 생활 다이나믹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들 프로그램이 1인가구에 외롭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맞춤형 정책이 되길 바란다.

광주정충 '가전산업 고용안정화' 기대된다

그동안 지역 총생산량의 17%를 차지해 왔던 광주 가전산업이 위기다.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잇단 법정관리 등으로 협력업체 피해가 커지면서 경쟁력 약화, 고용·성장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가전, 그리고 전·후방 산업은 최근 수요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채용 절벽과 숙련 인력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가 반복되면서 기업은 채용 비용 부담을, 현장은 기술 단절 리스크를 안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들 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광산구 일대를 급격한 고용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026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눈에 띈다.

가전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단순한 채용 알선을 넘어 구직부터 채용, 현장 적응, 장기근속까지 전 주기를 단절 없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심화된 구인난과 인력 이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착'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가.

이에 따라 광주정충은 '3단계 고용 안정 패키지'를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먼저 채용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6개월 근속 달성한 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든든 버팀 안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현장의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숙련된 제작자와 신규 입사자가 1대 1로 교육하는 '현장 이음 상상 지원' 사업도 하기로 했는데 신규 입사자가 6개월 근속할 경우 담당 제작자에게는 60만원의 성공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어 채용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면접 참여자에게 소정의 면접비를 제공하고 취업시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동행 마중 연계 지원'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가전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nam Daily,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address.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